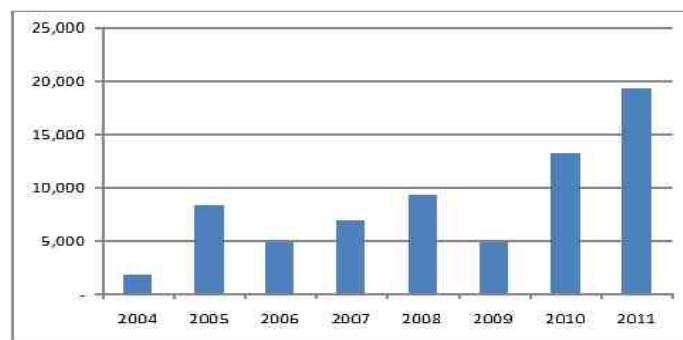


최근 인도네시아 FDI 증가 배경 및 전망

- 2011년도 인도네시아에 대한 FDI는 19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 상승하여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 1분기에도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음.
- 2011년 FDI는 업종별로는 제조업(74.3억 달러), 부동산·유통·통신업 등의 인프라 분야(55.5억 달러)와 광업(41.5억 달러)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싱가포르(51.2억 달러), 일본(15.1억 달러), 한국(12.1억 달러)이 주요 투자국으로 집계됨.

그림 1. 인도네시아 연도별 FDI 유입 추이(투자기준)

(단위: 백만달러)



자료: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

- FDI성장률은 금년 1/4분기에도 이어졌으며, 예를 들면, 일본 혼다 3억4,000만 달러, 샤프 1억 3,000만 달러 투자와 러시아 Solway 그룹의 30억 달러 투자 계획¹⁾발표 등이 있음.
- 최근 인도네시아에 대한 FDI가 급증한 배경으로는 △ 지속적인 경제성장 △ 투자 인센티브제도 개정 △ 개선된 광업정책 등을 들 수 있음.
- 2011년도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년대비 6.5%로 국내소비증가(GDP 대비 55.5%), 안정된 통화정책²⁾ 등에 의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함.
-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령 (2011/52호)에 따라 기초금속, 정유, 석유화학, 대체에너지, 통신시설 사업에 한하여 1조 루피아(약 1억 1,000만 달러)이상을 투자할 경우, 5년부터 최장 10년까지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 또한, 2012년 2월 초 광물자원의 국내 가공·정제 의무조항에 대한 시행세칙이 발표되어 제련설비 관련분야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1) Solway기업은 러시아의 대표적인 광물산업 전문기업으로 인도네시아 북술라와시 지역에 니켈 제련공장을 건설할 계획임.

2) 2011년 인플레이션율(2007=100)은 3.79%로 2010년 6.96%보다 감소하였음.

■ 인도네시아의 성장잠재력이 높아지고 한-인니 교역이 증대함에 따라 향후 한국기업의 진출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인도네시아정부가 경제회랑계획(IEDCs)³⁾을 추진함에 따라 인프라분야 투자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 포스코는 지난해 인도네시아에 60억 달러를 투자하여 동남아 최초의 일관제철소를 건설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다수의 대기업들도 인도네시아에서 투자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이외에도 2012년 3월 28일 한국-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협상 개시가 선언되었으며, 향후 CEPA 체결로 한국기업들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자료: 국내외 언론보도자료,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 인도네시아통계청 등〉

(김유미 연구원)

3) 각 회랑별(수마트라, 자바, 칼리만탄, 술라웨시, 발리-누사똥가라섬, 파푸아-말루쿠섬)로 나누어진 국가 전역을 허브(대도시)와 산업단지(경제특구, 자유무역지대) 등의 형태로 연결하고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각종 인프라 개발을 통해 향후 2025년까지 경제성장, 균형발전, 산업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는 장기개발계획임.